

국 외 연 수 보 고 서

- 연 수 국 : 중국 계림
- 연수기간 : 2013.11.10. ~ 11.15. [4박6일]
- 연수인원 : 17명(의원 12명 / 수행직원 5명)
- 연수목적 : 우수문화 비교시찰



중랑구의회

목 차

제1장. 국외연수 개요

- ☐ 연수배경 및 목적 2
- ☐ 연수국 및 연수지역 3
- ☐ 연수기간 3
- ☐ 연수자 명단 3
- ☐ 연수일정 4

제2장. 방문국 현황

- ☐ 중국의 개요 5
- ☐ 광서장족자치구의 개요 6
- ☐ 광서장족자치구 및 계림지도 7
- ☐ 계림시의 개요 8
- ☐ 우리나라와의 관계 9

제3장. 연수내용

- ☐ 계림시 수리국 10
- ☐ 인상 유삼저 13

제4장. 연수후기 및 제언 15

국 외 연 수 보 고 서

제1장 국외연수 개요

□ 연수배경 및 목적

- 한반도와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을 통해 그들의 역사와 다민족 국가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우리의 문화와 정책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문화의 차이점과 다민족국가 정책을 이해하고자 함.
- 초강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성장의 원동력을 배움과 동시에 고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의 애환과 저소득 빈민들의 그림자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함.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점진적인 기온상승으로 인한 아열대기후로의 변화에 대비하여 전형적인 아열대기후의 성향을 띤 중국남방지역인 계림시의 물관리 정책과 수해대비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수해방지정책에 도움을 얻고자 함.
- 1년에 1회에 한하여 자치단체의원에게 국외연수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국제적인 안목과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지구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전문을 통하여 자기계발과 창의적, 혁신적인 감각을 키우는 기회가 됨
- 국외연수를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높아진 창의성과 국제적인 안목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

- 연수국 및 연수지역 : 중국(China), 광서장족자치구, 계림시
- 연수기간 : 2013. 11. 10.(일) ~ 2013. 11. 15.(금) (4박6일)
- 연수자 명단
 - 총 17명 : 구의원 12명, 수행직원 5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부의장	김 규 환	의 원	최 성 식
의회운영위원장	신 정 일	의 원	은 승 희
행정재경위원장	김 영 숙	의 원	황 판 남
의 원	신 하 균	수행직원	박 도 수
의 원	조 희 종	수행직원	김 병 원
의 원	홍 성 욱	수행직원	곽 보 천
의 원	강 대 호	수행직원	김 선 영
의 원	송 화 영	수행직원	김 난 희
의 원	김 수 자		

□ 연수일정

일자	도시	교통	시간	일 정
1일차 (11/10) 일요일	인천 계림	OZ325	20:30~ 23:50	인천 국제공항 ⇒ 중국 계림 국제공항
2일차 (11/11) 월요일	계림	전용버스	10:00	계림시 수리국 방문 - 계림시 수해대비 현황 청취 - 기념품 전달
			15:00	몽환이강쇼 관람
3일차 (11/12) 화요일	계림 양삭	전용버스	09:00~ 12:00	계림 ⇒ 양삭 이동 (이강)
			15:30	서가재래시장 체험
			18:00	인상유삼저 관람
4일차 (11/13) 수요일	양삭 용승	전용버스	09:00~ 12:00	양삭 ⇒ 용승 이동
			15:00	계단식 논밭, 용척제전 관람
			16:00	소수민족 요족마을 체험
5일차 (11/14) 목요일	용승 계림	전용버스	09:00~ 12:00	용승 ⇒ 계림 이동
			15:00	과거와 현대의 조화, 우산공원 관람
			19:00	인공호수 양강사호 관람
6일차 (11/15) 금요일	계림 인천	OZ326	00:50~ 05:00	중국 계림 국제공항 ⇒ 인천 국제공항

제2장 방문국 현황

□ 중국의 개요

구분	중국 (China)
국명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면적	9,596,961 ^{km²} (한반도의 96배) - 세계 4위
국기	 ▶ 오성홍기 : 큰 별은 중국 공산당, 작은별 4개는 노동자, 농민, 소부르주아, 민족부르주아 계급을 나타냄
지도자	주석 : 시진핑, 국무원총리 : 리커창
인구	13억 3,861만명 (세계 1위)
수도	북경 (beijing)
주요도시	북경, 상해, 천진, 중경
언어	중국어
민족구성	한족 (92%), 55개 소수민족 (8%)
종교	불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 등 다수종교 존재
GDP	12조 6,100억\$ (세계 2위)
1인당 GDP	9,300\$ (세계 88위)
환율	1위안 = 174원
정부형태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공화제)

□ 광서장족 자치구의 개요

구분	광서장족 자치구 (廣西壯族 自治區)
면적	236,700km ² (남한면적의 2.5배)
지리	중국남부에 위치하고 서쪽은 윈난성, 북쪽은 후난성, 동쪽은 광둥성과 접하며, 남쪽은 통킹만에 접하며, 연해지역은 베트남에 접한다.
인구	4,822만명
주도	난닝(南寧)
주요도시	계림, 유주, 오주, 옥림
행정구역	14개 지급시, 56개 현
주요인사	공산당 서기 평칭화, 주석 마바오
기후	아열대성 기후
민족구성	한족(62%), 장족(32%), 요족(3%), 묘족(1%), 기타(1%)
풍습	장족은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아끼는 풍습이 있음
경제	광저우시에서 고속도로로 몇시간안에 도달할 수 있는 대형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한 농업특산물은 사탕수수로 전국의 60%를 차지한다. 공업은 발전과 기계공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GM과 합작하여 소형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다.
1인당 GDP	2,191\$

□ 광서장족자치구 및 계림지도

○ 광서장족자치구 지도



○ 계림시 지도



□ 계림시의 개요

구분	계림시(桂林市) - Guilin
면적	27,800km ² (경기도의 2.5배)
지리	광서장족자치구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2억년전 해저에서 지각변동으로 육지가 된 카르스트 지형으로 산봉우리가 3만 6천개로 <계림산수갑천하, 桂林山水甲天下>로 유명한 중국 10대 관광명승지이며 국제 관광도시임.
기후	아열대성기후 (연평균기온 19℃, 연간강수량 1,949mm)
인구	505만명 (시내인구 90만명)
민족구성	한족(84%), 장족 등 28개 소수민족(16%)
주요인사	공산당서기 자오러친(趙樂秦),
교육시설	726개교 (대학교 15, 중등전문학교 20, 초중등학교 500)
행정구역	5개구 12개 현 33개 향진
재정규모	약 740억원
관광객	연3,000만명(내국인 2,500만명,외국인 500만명) - 중국4위
역사	진(秦)나라 때부터 발달한 화남(華南)최고의 도시이며, 한때 淸나라 광서성의 성도(省都)이다. 구 시가는 唐나라때 구축한 석회암의 성벽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당대에서 청대까지 중국 남방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및 계림시는 한국과의 관계가 독특하며 한국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중국 관광지중 한곳이다. 한반도 면적보다 큰 광서자치구내 4,800만명 광서인구 중 한국인 거주자 50여명, 그중 계림시 거주 한국인이 제일 많지만 겨우 13명에 불과하다.

매년 한국 관광객이 평균 7~9만명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의 각종 영화, 드라마의 촬영장소로 계림 경치가 활용되고 있다.

○ 자매결연

2003년 계림시-제주시 자매결연으로 문화사절단 년1회 상호 방문중에 있으며, 계림TV-제주MBC 자매결연, 전주MBC-유주TV, 광서TV-원주MBC 자매결연과 광서 사범대학-목포대 자매결연 등으로 많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다.

○ 역사적 관계

광서성 제2의 도시이자 최대 공업도시인 유주시 중심에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기념관이 있으며, 계림시 동북부 90km 지역의 전주시는 한국의 전주시와 지형뿐 아니라 지명, 문화, 풍습도 똑같아 역사적 아이러니컬한 면이 많다.

이는 후백제때 견훤일가가 이곳으로 이주해와 정착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 경제적 관계

계림에는 대우버스공장과 대우쉐라톤호텔(5성), 금상호텔(3성), 아시아나 계림지점이 위치하며 동환에어컨공장 등이 있으며 기타 지역에는 소규모 공장 3개소를 한국인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물론 다른 성/시보다는 한국인 비중이 낮은 편이다.

○ 문화 우호적 관계

2000년부터 아시아나 항공은 인천-계림을 운항 하면서 양국 문화교류 공로를 인

정반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은 계림시로부터 “명예시민”으로 추대되었으며 현재 광서 사범대에는 한국어과가 정식 개설되었고, 2년 자국강좌 + 2년 상대국강좌 수업 방식으로 교환학생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유학생들이 약 50여명 본과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제3장 연수내용

□ 계림시 수리국 (桂林市 水利局)

- 방문일시 : 2013. 11. 11(월) 16:00~17:00
- 방문장소 : 계림시 수리국 사무실
- 방문내용 : 계림시 수리국 주임(구근휘) 재해예방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주요 브리핑 내용
 - 계림시 수리국의 최고 책임자인 주임이 직접 예방하였고, 매우 환대하며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직접 계림시의 개요, 수리국 업무, 수해방지 대책(홍수방지, 가뭄방지, 댐 관리 등)에 대하여 브리핑하는 것이 인상깊었음.
 - 계림시 기후가 아열대 기후이며, 우기철인 3월~8월중에는 2,400mm의 집중폭우가 쏟아지고, 산이 가파르고 경사가 급하여 물이 급하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홍수피해에 매우 취약한 지형을 가지고 있음.
 - 400여개의 댐을 건립하여 집중폭우기간에는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홍수수위 조절을 철저히 함으로써 하류지방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 시내홍수 예방조치로는 독(제방)건설 및 관리, 펌프장 운영, 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발생하면 유관기관이 긴급 지원하여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김규환 부의장

Q. 전기에는 물부족현상 발생시 대책은?

A. 가뭄대책조직을 가동하여 지하수, 댐 등을 통해서 물공급을 함.

- 송화영 의원

Q. 최근 홍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

A. 일부 침수된 적은 있으나, 댐의 수위조절을 통하여 잘 대비하고 있음.

- 김수자 의원

Q. 계림시의 홍수방지 건설기준은?

A. 100년~150년 주기를 기준으로 댐건설을 하며, 현재 3개의 대형댐을 건설중에 있음.

- 은승희 의원

Q. 아열대성 기후,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책은?

A. 1단계 상부댐 수위조절, 2단계 시내 소규모댐 수위조절, 3단계 시내 빗물펌프장 가동으로 대비하고 있음.

- 김영숙 의원

Q. 태풍 “하이옌” 에 대한 대비책은?

A. 계림시청 전 공무원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통하여 대비하고 있음.



○ 수리국 주임의 성의있는 답변이 인상깊었으며, 마침 방문시기가 초대형 태풍인 “하이옌” 이 필리핀을 지나 계림에도 영향을 주고있는 시기여서 재해대비에 대한 현장감있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재해예방 시스템이 인적, 물적으로 비교적 잘 갖추고 있으며, 잘 가동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음. 특히 홍수주기를 100년~15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과 일사분란한 위기대응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는 점 등은 사회주의적 대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생각되었음.



□ 인상 유삼저 (印像 劉三姐) - Sanjie Liu Impression Show

○ 방문일시 : 2013. 11. 11(월) 19:00~21:00

인상유삼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 무대에서 펼쳐지는 수상 야외극이다. “붉은 수수밭”으로 유명한 중국 영화계의 거장 장예모 감독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장예모 특유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상상력과 그것을 자연 속에서 구현하는 능력이 가히 경이롭다.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는 인상유삼저를 보기 위해 계림을 방문하는 이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공연이다.



장예모 감독이 5년 동안 공 들여 준비한 대작으로 ‘유 씨집안의 셋째 딸이 지주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목동과 결혼한다는’ 이 지역 설화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주 내용이다. 이강과 산봉우리 등 자연을 무대로 총 700여 명의 출연자들이 배를 타고 나와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만큼 거대한 스케일과 화려함이 돋보인다.

이 공연의 특징은 참여인원 700여명이 모두 지역의 리강예술학교 학생들과 강변 5개마을의 어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현지 주민들은 낮에는 강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 공연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매일 밤 1시간 반가량 펼쳐지는 이 공연은 5~6만원의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3,000여 명의 관객이 거의 매진을 기록한다고 하니, 이 공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짐작케 한다.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소수민족 거주지역에 장예모라는 천재 영화감독을 내세워 이곳 이외에도 4곳에서 인상(印象)시리즈를 성공적으로 공연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인상시리즈의 효과는 경제적 효과 외에도 소외된 소수민족의 문화를 세상에 알림으로서 해당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수민족의 소외와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축제숫자가 2,500여개에 달한다고 하며, 소요되는 예산도 2,5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하루 평균 7~8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니, 가히 “축제공화국”이란 언론의 비아냥이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축제가 단체장의 치적홍보용으로 계획되고 예산낭비의 주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비판은 따갑기만 하다.

이 기회에 우리 중랑구의 축제도 혹시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시점이다.

그에 비하면 중국의 인상시리즈 공연을 본보기로 삼아 제주 서귀포 섭지코지에 아시아 최대의 아쿠아리움에서 지역 어촌계 해녀들이 참여하여 수족관 속에서 10m 깊이까지 물질을 재현한 “전통해녀 물질공연”이 최고의 공연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 하면,

서울을 찾는 일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정동극장의 춘향전을 각색한 ‘미소’ 공연과 난타전용극장에서 공연하는 난타극은 5~6만원의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연일 매진이 되고 있다고 한다.

50년 역사의 “수원 화성문화제” 도 500여명의 연기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총체 공연(무예종합예술공연)과 정조대왕 능행차 등은 새로운 축제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우리 중량에도 용마폭포공원이나 봉화산, 중량천을 무대로 지역의 역사적 사실이나 전설을 소재로 한 상설공연장 기획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제안한다. 도시지역이라 지역주민을 출연배우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지역의 스토리와 콘텐츠에 충실하고 명성있는 연출가를 모셔온다면 중국의 인상시리즈에 못지 않는 훌륭한 지역의 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제4장 연수후기 와 제언

- 4박 6일의 중국 계림연수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하는 우려반 기대반의 마음으로 공항을 떠나 현지를 방문하고 온 결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나름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 먼저 계림시 수리국을 방문하여 중국 공무원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정환경을 돌아보니, 넓은 사무실 분위기와 쾌적한 환경이 우리나라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거기에 덧붙여 공무원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남방민족 특유의 여유로움까지 느껴져 근무만족지수가 상당히 높으리라는 예상은 해보았다.
- 또한 아열대기후의 집중폭우에 대비한 수해방지 대책도 꼼꼼하게 잘 수립되어 있고, 400여개의 댐건설과 24시간 가동되는 감시시스템 등은 질과 양 모든면에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만족한 일상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물론 우리 중랑구도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수해방지 투자를 통하여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주민들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탈바꿈한지 오래이기에 더욱 공감이 되었다.

○ 다음은 둘째날 관람한 “인상유삼저” 공연은 지역의 축제와 공연이 어떤 방향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부분의 연수내용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도 지역고유의 스토리와 실력있는 연출이 결합된 문화관광상품이 기획될 수 있기를 적극 제안해 본다.

○ 세 번째, 세계의 G2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연수였다. 지방의 중소도시에도 불과한 계림시의 잘 갖추어진 사회기반시설과 시내 중심가의 변화한 쇼핑물, 호텔 등은 지방정부의 재정여력과 시민의 소비여력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전거가 도로를 한가득 메우고 있음을 보고 이들의 기술력이 우리의 친환경 산업기술을 앞지르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것을 느꼈고, 시내의 대로에는 1개 차선을 넓게 확보하여 전기자전거 등에 할애하고 있음을 볼 때,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된 그들의 거시적인 도로정책에 부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 마지막으로 우리구의회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지방의원의 국외연수가 사전에 충분한 계획없이 여행사 일정에 맞춰 관광중심으로 진행되고, 해외연수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방의원의 국외연수가 관광성 외유로 인식되고 있으며, 항상 언론 등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원 개개인의 마음가짐 변화와 의회자체의 시스템 개선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몇가지 제

안을 통하여 구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원해외연수가 될 것을 기대한다.

- 국외연수 계획단계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것인지에 대한 의원과 사무국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지역현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제와 연수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 연수지역과 주제가 결정되면 여행사에 일정을 의뢰하지 않고, 현지 대사관이나 문화원 등에 의뢰하여 방문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등 일정협의를 한다.
(여행사는 항공권 예매와 현지 숙박, 인솔가이드 섭외 등)
- 국외연수 인원구성은 전의원이 함께 하는 것 보다는 상임위별 또는 정당별로 가급적 소수가 참여하는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여건이 비슷한 타구의회와 합동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 국외연수 후 연수과정에서 보고 느낀 부분을 지역발전 정책 활용여부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구 집행부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한다.
- 국외연수 보고서는 일반현황은 사무국에서 작성하고 연수내용 및 연수후기에 대해서는 연수에 참가한 전의원이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 국외연수 이후 그 성과와 정책사례 등을 언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연수의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한다.